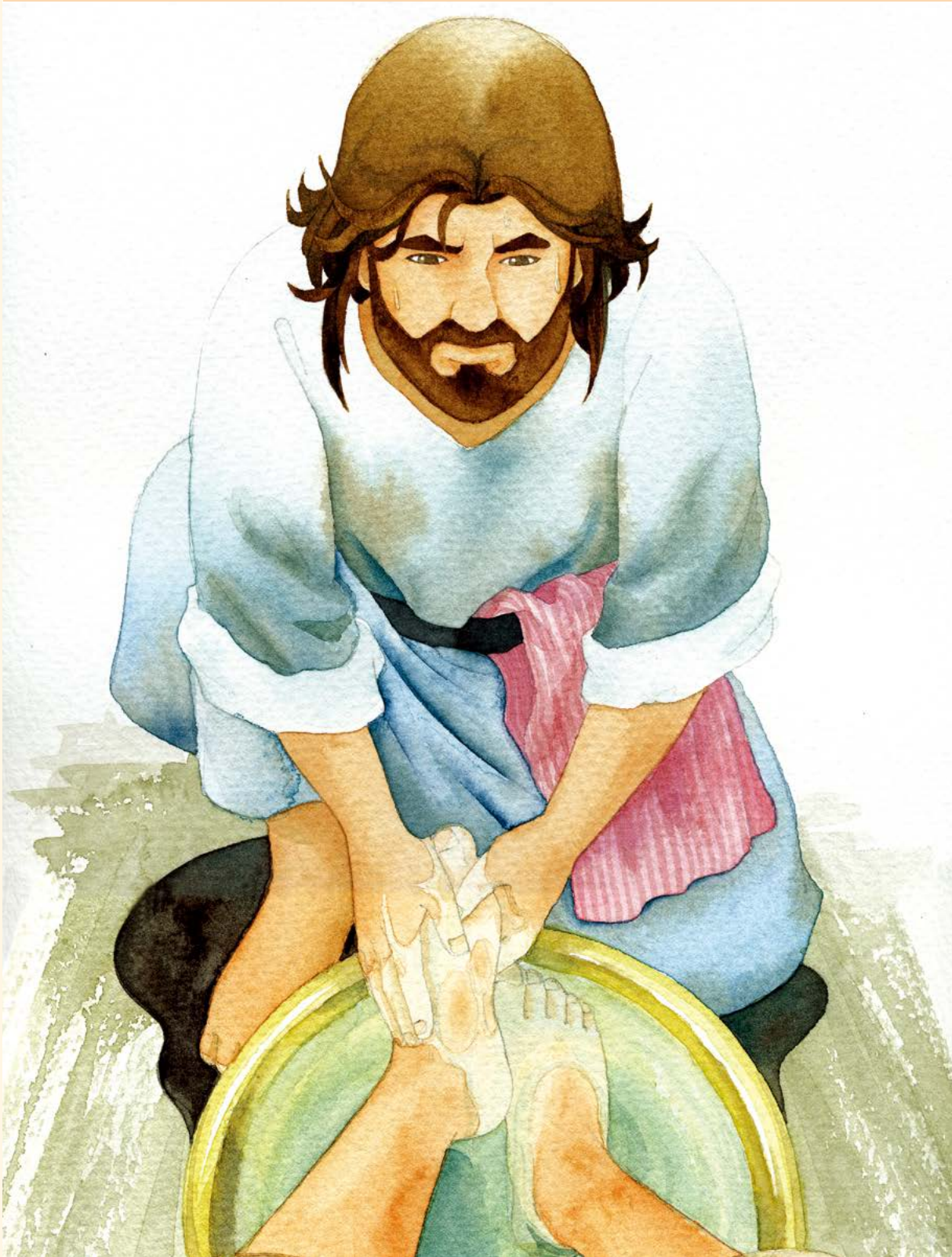


36 발을 씻기신 예수님

요한복음 13:1~20

저녁을 먹던 중에 예수님께서는 겔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유월절 전날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된 줄 아시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저녁을 먹던 중에 예수님께서서는 겹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 “¹⁾주여, 주께서 제 발을 씻기시다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리라.”

베드로: “저의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님: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 “주여, 내 발 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십시오.”

예수님: “이미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¹⁾주: 주인

성경 암송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찌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8)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 저녁을 먹기 위해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저녁을 먹기 전에 발을 씻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기 전에 누가 제자들의 발을 씻겼나요?



베드로의 차례가 되자 베드로는 왜 자기 발을 씻기지 못하게 하였나요?

발을 씻기는 일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는지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서로 발을 씻기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의 더러움을 씻기신 것같이 우리도 서로 발을 씻겨 주어야 합니다.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발을 씻겨 주어야 하는 이유는 무
엇일까요? 아래 말씀을 찾아 읽고 답을 써 보세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할지니 은 허다한 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8)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께서서는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고 하셨습니다. 아래 글을 읽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오늘은 교회학교에서 승민이네 반이 수련회를 갔습니다. 승민이는 평소에 오랫동안 차를 타면 멀미를 하고 했습니다. 수련회 장소로 가는 버스 안에서 승민이와 영철이가 함께 앉아 음료수와 과자를 먹으며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승민이는 머리가 어지럽기 시작했습니다. 멀미를 하던 승민이가 그만 버스 안에서 먹던 음료를 쏟고 말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짜증나' 하면서 기분 나빴지만, 옆에 앉아 있던 영철이는 재빨리 휴지를 꺼내 승민이가 었지른 음료를 닦아주었습니다.



영철이는 휴지를 꺼내 었지른 음료를 닦았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닦았을까요?

.....



나에게도 교회학교 친구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



교회학교 친구들의 허물을 덮어준 경험을 적어 보세요.

.....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가복음 10:43~44)

예 화



섬김



한 왕이 침대 곁으로 신하를 불러 말했습니다.

"나는 곧 죽을 텐데, 왕자가 없으니 누구에게 왕위를 물려주어야 할지 모르겠소."

그 신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뛰어난 신하들 가운데서 고르소서."

왕은 뛰어난 신하 둘을 침실로 불렀습니다.

왕은 먼저 쿠아럼이란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쿠아럼, 만일 자네가 왕이 된다면, 어떤 왕이 되겠는가?"

"폐하 저는 법대로 통치하고 백성을 엄하게 다스리겠습니다."

왕은 다른 신하 로스트럼을 돌아보고 물었습니다.

"로스트럼, 만일 자네가 왕이 된다면, 어떤 왕이 되겠는가?"

"폐하, 소인은 변함없이 지금 제 모습, 그대로일 것이옵니다. 신하의 모습 그대로 말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왕과 신하 사이의 유일한 차이점은 왕위일 뿐이옵니다. 진정한 왕은 섬기는 사람이니까요."

왕은 로스트럼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부모님난

선생님난

Blank box for writing about parents.

Blank box for writing about teachers.